

▶▶ 분노를 터뜨려라! ; 트라이브 8 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Rise Above : The Tribe 8 Documentary / Tracy Flannigan / 미국 / 2002년 / 80분

* 2003년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여성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다이크 펑크 록 밴드인 트라이브 8(tribe 8)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골적인 성적 퍼포먼스 및 노래 가사가 주를 이루는 트라이브 8의 공연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한 여성 영상작가가 그들의 신념을 캐내기 위해 무려 4년 동안 카메라를 돌린 결과물이다.

영화는 트라이브 8의 공연 실황과 이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멤버 개개인의 밀착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 이미지로 어필해야 하는 정형화된 여가수 이미지와 포크와 팝 음악 장르가 지배적인 '여성'음악 장르를 넘어서려는 트라이브 8의 신념과 그 신념이 싹튼 원인 및 맥락을 담고 있다. 카메라는 밴드 멤버 각각의 어린 시절, 노래를 한다는 것의 의미,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 여성으로서 각자에게 놓여진 냉엄한 현실에서의 생존 방식 등을 이들 밴드와 하나의 여성 공동체로 어우러져 담아낸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여성/레즈비언이라는 주변인으로서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역설적으로 주변인이라고 자신을 동일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자유와 용기를 무대 위에서 함께 폭발시킨다. 기존의 가부장제에서 원하는 '여성'을 '넘어서는' 자만이 가시화되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화.

6월 3일 (화) 오후 7시 위당관B09호

▶▶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

Filming Desire : A Journey Through Women's Film / Marie Mandy / 프랑스 / 2001 / 60분

* 2001년 몬트리올 영화제, 2001년 프레미에르 여성영화제, 2002년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 상영작

이 대담한 다큐멘터리에서 마리 망디 감독은 질문을 한다.

"여성 감독들이 사랑, 욕망, 특히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영화화 하는가?"

샬리 포터, 아네스 바르다, 까뜨린느 브레이아, 도리스 되리, 디파 메다, 제인 캠피온 등 현재 세계 곳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 감독들의 진귀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작품. <욕망을 영화화하기 ; 여성감독이 말하는 섹슈얼리티>는 영화 제작에 있어 성의 정치학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성 감독들은 자신의 직업들에서 가져온 클립들로 실례를 들어 여성적 관점의 구체화, 여성적 영화 언어의 가능성,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된 영화 속의 욕망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더불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그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솔직하고 익살스러우며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작품은 여성학, 영화학, 섹슈얼리티, 신체의 이미지,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주요한 관점을 선사할 것이다.

※ 영화 상영 후 주유신(중앙대 교수, 영화평론가)씨의 강연을 진행합니다.

6월 4일 (수) 오후 6시 30분 외솔관110호

주최 :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破/만/波 제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2123-3645